



K1A을 활용한 숲속 은폐



수리온 헬기에 탑재된 7.62mm 기관총

S&T모티브, 방산 제품 국산화 선도 우리만의 화기개발...특수부대용 화기 생산

국내 최대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 S&T모티브(대표 김형철)는 1970년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국방부 '조병창'(造兵廠)으로 출발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효시로써 '우리만의 화기'를 개발해 군에 보급하며 방산 제품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S&T모티브는 K1A 기관단총 개발에서 시작해 K15 경기관총에 이르기까지 소총·권총·기관총·저격용 소총 등 소구경 화기의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STC16 5.56mm 기관단총은 대테러나 시가전 등 특수작전을 위한 특수부대용 소총이다. 기존 K1A 기관단총을 대체해 성능을 개선했다. 소총에 모듈화 개념을 도입했고 작전환경에 따른 운용성·편의성·신뢰성·정비성 등을 향상했다. 특히 오른쪽 사수와 왼쪽 사수를 고려해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K15 5.56mm 경기관총은 1989년부터 군에서 사용 중인 K3 경기관

총의 후속 화기다. 기존 K3와 달리 주야간 조준장치를 통합해 원거리 적 밀집부대 등 지역 표적을 제압할 수 있다. 총열을 신속히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부수 기재도 사용할 수 있다. K15는 지난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양산을 앞두고 있다. 기존 경찰용 권총을 대체하기 위한 9mm 리볼버 타입 차기 권총도 개발한다. 경찰용에 맞춰 공포탄, 비살상 탄, 보통탄(실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모듈을 탑재해 발사된 탄의 종류와 발사 수, 발사 시간과 위치, 발사각도 등 정보를 저장한다. 올해 개발을 완료하고 경찰과 협의해 실용화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형 특수목적용 화기(KSPW)는 전자식 격발장치와 RF 통신 기술을 적용했다. KSPW는 전방에 장착된 카메라와 9mm K5 권총을 이용해 벽이나 참호에 숨어서도 발사할 수 있다. 총구는



특작전용 기관단총 사격



시가지침투훈련

좌우 60도로 꺾이고, 디스플레이도 상하 45도로 움직여 '굴절형 화기'로 불린다. 사수는 총신에 장착된 모니터로 영상을 보며 발사할 수 있다.

7.62mm K12 기관총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장착용으로 개발됐다. 분당 650~950발까지 발사할 수 있고 예비 총열을 갖췄다. 화력 유지를 위해 총열 교체 시간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헬기 장착과 함께 육상전에서도 사용 가능해 보병용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저격수가 아닌 일반 보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7.62mm K14 반자동 저격용 소총은 자동장전되며 반동 억제 소염기를 채택했다. K2C1의 조절식 개머리판에 완충 스프링을 넣어서 사수한테 가해지는 충격량을 크게 줄였다.

S&T모티브 관계자는 "국내 방산업체 선두주자로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생산혁신으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